청렴 제주실현을 위한 청렴콘서트 장의 열기를 다시금 되새기며.....

청렴콘서트 시작
(2015. 8. 2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 청렴연수원장의 직접 사회를 통한 쌍방향 교육 (격이 없고 하나 되는 청렴교육)
- 청렴 제주실현을 위해 사장님 이하 공사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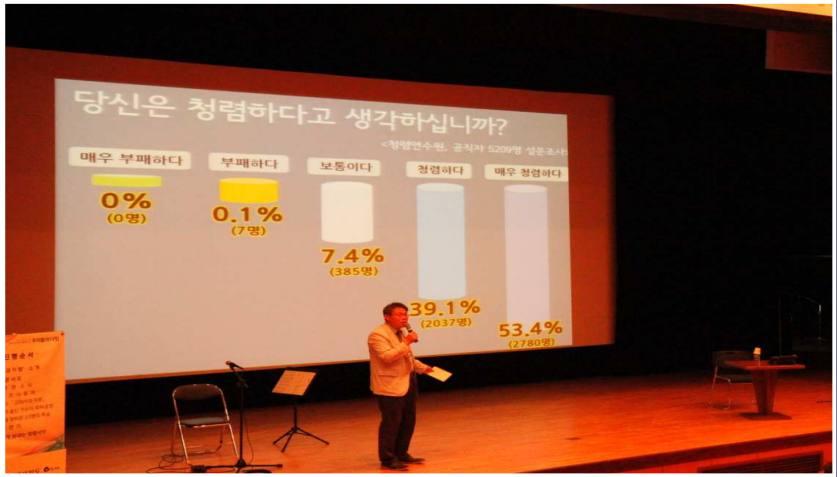
판소리 춘향가를 통해 풀어보는 청렴

- 판소리 춘향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 불량소녀 성춘향, 비리공무원 이몽룡, 선도위원 변학도 등 지난날 묵인했던 관행이 오늘날 범죄가 되는 세상, 변화에 대하여 낡은 사고와 관행을 버리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에 다 같이 동참해 보자
- 낯선 판소리와 같이 가깝고도 멀게만 느껴졌던 청렴을 함께 웃으며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준 멋진 공연

퇴직 공직자 출신 가수의 축하공연

- 슈퍼스타K 5 출신의 스테파노(김대성)씨의 노래공연. 방송당시 음악인의 꿈을 위해 오래도록 근무한 공직생활(건강보험공단)을 2년 먼저 퇴직하고 오디션에 응시해 많은 감동을 줬던 장본인을 직접 초대하여,
-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행복의 나라로' 등 노래를 부르고 청렴연수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직 생활 에피소드를 통한 공직생활의 소회·보람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보는 공직사회 청렴에 대한 인식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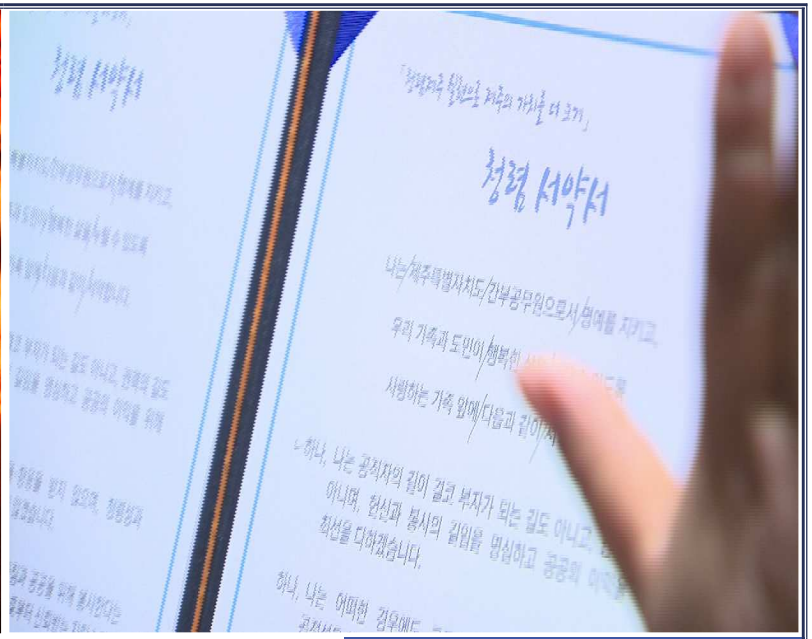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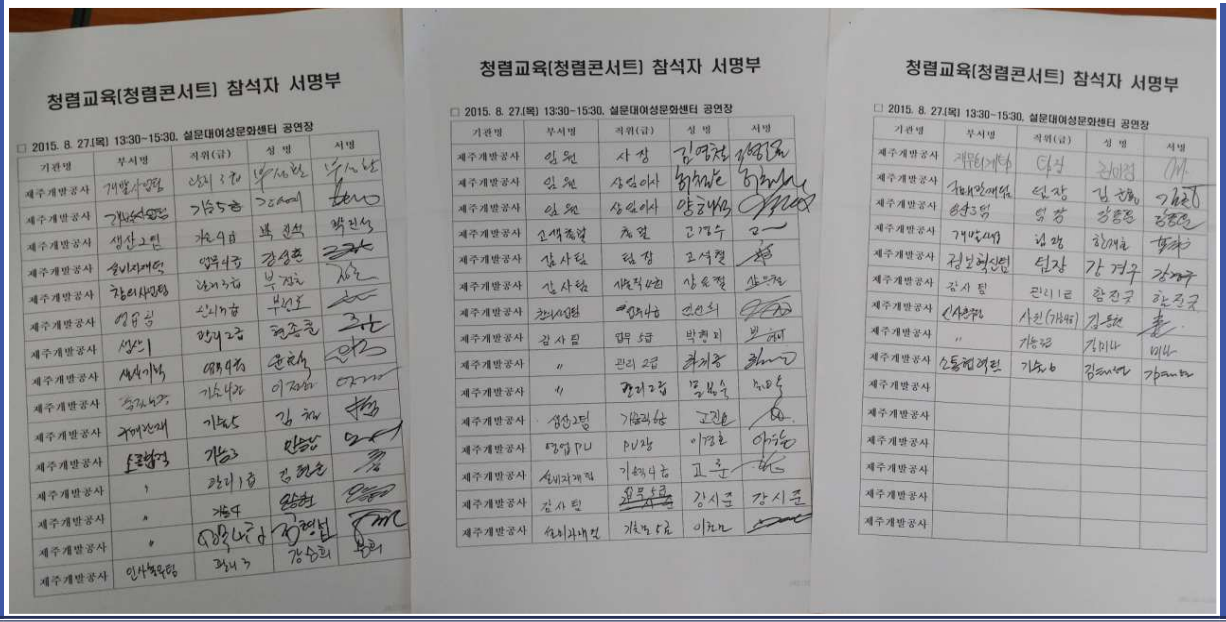
- 공직자들에게 '당신은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의외로 개인이 청렴하다, 매우 청렴하다는 답변. 그럼 '공직사회는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서는 부패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 공직사회에서의 청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며 다음 공연을 통해 우리 일상을 통해 청렴의식 다시금 재정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황극
「고이사의 하루」

- 인사 청탁을 받은 '고이사'는 전화로 청탁을 이행하기로 한 후 청렴도 전화 조사원의 전화를 받습니다. 앞서 우리도 받았던 '자신은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청렴하다 생각한다고 번호를 누르려고 하죠. 이때 청렴연수원원장이 "방금 인사 청탁 하셨잖아요, 그건 부패 아닌가요? " 공직자로서 고이사의 문제점을 지적. 이에 고이사는 "그런 게 부패면 세상에 부패 아닌 게 어디 있나? "라고 반문.....
- 공무원들이 청렴하다고 느끼는 통계자료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청렴도에 차이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소한 청탁 이행이라도 청렴도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웃음과 교훈이 있는 상황극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과 청렴에 대해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청렴한 제주」
실현의 청렴서약





「행복한 가정, 청렴한 제주」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으로
청렴서약을 끝으로
청렴콘서트 마무리